

2026년도 9월 소식지



9.23 추석 모듬전 판매하는 날! 우리 조합은 명절 기분 이렇게 냅니다~



이달의 조합원 인터뷰 - 박상준 조합원
주요 소식 # 요모조모 소식
마을 나눔과 연대
눈여겨 볼 소식
조합비/후원금/생일축하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77길 62
<http://suyucoop.com>
suyucoop@gmail.com
사무국 02-980-0715
수유은빛마당 02-982-0710



이달의 조합원



박상준 조합원

수유1동도시재생사업의 집수리 교육 참여를 시작으로
함수협동조합을 함께 만들고 장애인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금까지
동네 이곳저곳을 누비며 신나게! 힘차게! 일하시는
박상준 조합원님을 만났습니다.

2021년 함수협동조합은 설립 이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결해 주는 지역의 든든한 해결사이자 정겨운 이웃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함수의 이사장이신 박상준 조합원님은

**“과거의 경험이나 경력들이 모두 쓰일 데가 있고, 그 덕분에
갈수록 자신감이 생긴다.”** 는 인상깊은 말을 하셨는데,

이 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는 사업이 끝난 이후에 더욱 뚜렷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관적인 사업가이자 현장을 중시하는 리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사람, 박상준 조합원에게 반했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유1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현재 함수협동조합의 이사장입니다.

한빛맹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며 자연스럽게 수유동의 여러 주민들과 만나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대학에 진학해 아동보육을 전공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한빛맹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 장애인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는데,
그런 시간들이 쌓여 수유1동도시재생과 우리 조합과도 계속 인연이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함수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진행한 집수리교육에 참여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그냥 헤어지지 않고 후속 모임을 이어갔고, 그 모임이 발전해 함수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에 함수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22년에 발래골생활문화공작소가 만들어져 함수 공간과 사업을 본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16명의 조합원이 참여했고, 초기 출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출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이 바뀌기도 했지만 현재도 활동 조합원은 16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같다는 것은 그 밥에 그 나물 또는 발전 없음이 아니라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의 수고와 열정,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함수협동조합을 소개해 주세요.

현재는 이사 5명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목공교육사업과 집수리사업 두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으로 <서울시 안심집수리>, <장애인 소규모 집수리인 '장집사'>, <통합돌봄과 연계한 집수리> 등의 공공사업을 주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어르신처럼 집 안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수전이나 샤워기,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요?

어머니와 60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복대를 하고 생활하고 계셨고, 집 안에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았어요. 정해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변기와 샤워시설 등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손봐드렸습니다. 근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샤워기 줄에 테이프가 감겨 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은 교체할 제품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마음에 남아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결국 다음 날 제가 직접 샤워기 줄을 사서 다시 찾아가서 직접 교체해 드린 것이 생각나네요. 그러고나니 마음이 편하고 한결 좋아졌습니다. ^^

앞으로 합수협동조합을 어떻게 키워가고 싶으신가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건설업 등록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 협동조합을 만들 때 젊은 조합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수익을 만들어 여러분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만들어보자.”
목공이나 집수리는 몸도 힘들고 기술을 배우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술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술을 갖고, 그 기술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이 다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조합과 합수협동조합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해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집수리나 주택 관련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서로 더욱 상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키우신 블루베리를
두해째 조합에 납품^^ 해주셨어요.
덕분에 상싱하고 맛난 블루베리를
조합원님들이 구매하실 수 있어
좋았답니다~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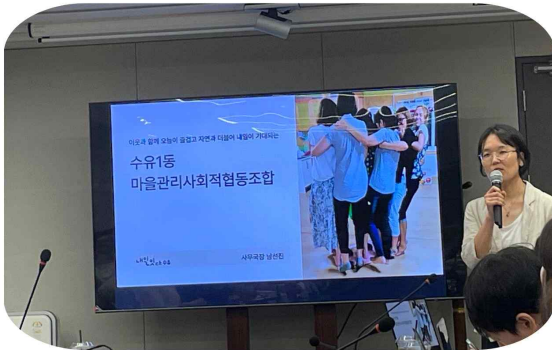
마관협에는 처음부터 가입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수협동조합 일을 함께하다 보니 우리조합에는 생각만큼 많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이나 이사님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힘도 보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모두 잘하려고 하니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인터뷰 때 박상준 조합원님은 조합 일에 시간과 힘을 보태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내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사람과 일, 합수를 일으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한 포부가 크신 만큼 우리조합과 합수의 협업이 더욱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힘차시길 바랍니다.



조합 주요 소식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권역별 간담회 우수사례 발표



9/11 금요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권역별 간담회(수도권, 강원권)가 진행되었어요.

이 간담회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후관리 지침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우리조합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우수 사례로 조합 운영 현황, 주요사업,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어요.



발표를 맡은 남선진 사무국장은 ppt 몇 장에 다 담기 어려운 10년간 주민들의 많은 땀, 웃음, 눈물, 애정이 떠올라 부담도 되고 마음이 울컥울컥 했지만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우은정 이사님, 신지현 감사님과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조합원님들 덕분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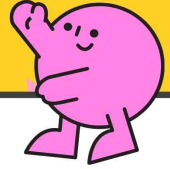


이 자리에 함께 한 국토교통부, 연구기관, 지자체 관계자 분들이 수유1동 주민들과 우리조합이 해낸 일들로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가치가 현실이 되어 사람들의 삶과 관계, 지역을 멋지게 제대로 살릴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감동 먹은 듯 했어요 ㅎㅎ)

이 자리를 계기로 제대로 된 지침들이 만들어져 우리조합 뿐 아니라 전국의 200개가 넘는 마관협과 600개가 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더 많은 웃음, 감동, 어울림이 넘치길 기대해 봅니다.



요모조모 조합 소식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준비를 위한
8/20 이사회/ 운영진 워크숍



9/2 수다, 은빛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신청

벌써 3번째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신청을 했어요.
운영기간은 수다는 26.10.16.-29. 5. 31./
은빛은 26. 10. 16.-28. 5. 31.입니다.
구청에서 10월 15일쯤 허가 여부를
알려주시기로 했어요.
제일 먼저 조합원님께 소식 전할게요^^

9/10 어르신들과 강화도 나들이

월요노인밥상에도 자주 오시고 (재)바보의나눔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노인연극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 다섯분과 나들이 다녀왔어요.
서로 더 살가워지고 편해져서 이후의 만남과
연극활동이 더욱 흥이 나겠죠?
12월 노인문화제 연극공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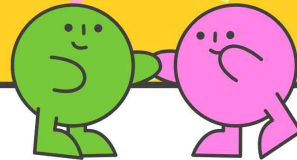
9/22-23 추석 모듬전 준비, 판매!

작년 추석, 올해 설에 이어서 벌써 세번째
명절 모듬전 판매를 진행했어요.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품을 내고 시간을 내어
재정 마련을 위한 사업에 팔 걸어붙이는
우리 조합원님들, 주민 봉사자님들
무한 감사 드립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나눔과 연대 소식



9/19 기후정의행진을 위한 발걸음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울시청과 송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 환장 등 지역에서 환경 운동과 활동을 하는 단체와 시민들도 함께 했어요. 우리 조합도 당연 뭉쳤지요. 함께 한 분들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의지에 기후위기가 잣아들기를 바라며 행진했어요.



9/20 사회적경제 나눔박스 전달

강북구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힘을 모아 기증품을 모으고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후원행사를 진행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필수품이 담긴 선물박스를 전달했어요. 우리조합과 두루두루배움터도 지역 어르신 세분께 선물 박스를 직접 전달해 드렸답니다.



9/21 제 28회 추석맞이 윷놀이 대회

우리조합이 함께 하는 "수유1동 노인들봄네트워크 다정다감"에서 추석을 맞아 수유일공원에 뒀습니다. 이날은 수육을 바로 삶아 어르신들께 식사로 드리고 윷놀이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진행해 어르신들이 어울렁더어울렁 즐겁게 어울리셨어요. 함께 하니 추석의 넉넉함과 다정함이 더해졌어요.





10월 눈여겨 볼 소식



우리동네 서로돌봄학교



우리 동네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나답게 나이 들고, 이웃과 어울리며, 서로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 배우기



- 1 노인은 나이트 보통의 시민입니다
- 시민성에 기반한 나이 들과 대한민국 노인의 삶에 대한 이해
• 강사: 한빛복지관 관장 임종훈
- 2 강북구 '두꿈 인생 학교' 이야기
- 생동하는 노년의 삶과 관계, 꿈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 강사: 두꿈인생학교 사무국장 김성희
- 3 일상 속 서로 돌봄 실천 방법 배우기
- 노년의 건강 변화를 이해하고 생활 속 돌봄 실천하기
• 강사: 한빛복지관 관장 임종훈
- 4 통합돌봄과 서로돌봄 상생하기
- 통합돌봄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동네 서로돌봄 그려보기
• 강사: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우성규

- * 교육 일정 | 10/12~11/2, 매주 월요일 19:00~21:00 (총 4강 / 수강료 없음)
- * 교육 장소 | 빨래굴마을사랑방 수다 2층 소모임실
- * 교육 대상 | 건강한 노년의 삶, 마을살이에 대해 궁금한 주민
돌봄 관련 일을 하시는 분 등 누구나 (선착순 15명)
- * 신청·문의 | 02-980-0715 / 010-4321-7015



우리동네 서로돌봄학교 참여자 모집

나와 우리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잘 나이 들고, 이웃과 어울리며,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네.
그런 동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4번의 만남과 배움을 통해
나이 들 → 관계 → 생활 속 돌봄 → 우리 동네
서로돌봄을 차근차근 만나봅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서 서로돌봄의
첫걸음을 함께해 주세요.

신청 링크 : <https://forms.gle/iV7J7pHdvHxuJWFe6>

문의 : 02-980-0715 / 010-5595-5765 (조합사무국)

참여 신청

큐알 코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9월 조합비 납부

강현애 고인석 권은자 길현실 김미애 김성훈 김연자 김유진
김일웅 김지애 김차리 김학준 김혜경 김홍녀 남선진 민병조
박경희 박수진 박영진 박종귀 박종우 박진우 서은영 신영미
신지현 우성구 우은정 윤정현 이경숙 이경희 이새롬 이영진
인정심 임수경 장현주 정세현 정순희 정은수 정정례 정 훈
조유림 조정림 차재혁 최미영 최민규 최진숙 한명탁 호은성
수유수제맥주프로젝트협동조합 자원순환환장사회적협동조합

HAPPY
BIRTHDAY

9월 후원자

권복희 김건식 김옥성 김진숙 오정화
우은정 윤창범 정용덕 정 훈
수다탁구교실 은빛기타교실



9월 생일 조합원

박수진 (9/4) 정명훈(9/9)
서정해 (9/17) 정세현(9/18)
최민규 (9/26) 길현실(9/27)
전미라 (9/27)



조합원 가입이나 후원을 하고자 하는 분은 조합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2-980-0715)
후원계좌: 신한 131-021-495303 (수유1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